

'월드클래스 300' 기업 두 곳 선정 쾌거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주)호원·(주)삼원산업사 2012년 (주)오이솔루션 첫 선정 이후 총 8개사로 늘어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주)호원과 (주)삼원산업사가 올해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월드클래스 300'은 중기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발굴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400억원~1조원, 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3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비를 2%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등이다.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등을 통해 '월드클래스300' 기업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주)오이솔루션을 처음으로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기업이 총 8개사로 늘어 나게 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간 15억원의 미래 전략·원천기술개발 연구비와 마케팅비 7억5000만원, 5년간 금융지원

우대와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주)호원은 자동차 차체부품 모듈 전문 제조 기업으로 터키에 설립한 해외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생산품의 55%를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해 포드사로부터 공급자 품질인증 'Q1'을 획득해 포드사의 대·소형 자동차 개발에도 참여함으로써 향후 유럽·미국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 열교환기, 전선 등 비철

금속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주)삼원산업사는 2004년 설립된 이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대기업 해외 이전에 따른 위기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가전제품에 특화된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동차용 전선 분야에도 투자해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 대응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장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수출 유망기관 지원역량을 집중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기아차, '더 뉴 K5 하이브리드' 출시

연비 강화, 첨단 사양 등 경쟁 판매가 세제혜택 2890-3355만

기아자동차가 스포티 하이브리드 세단 '더 뉴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더 뉴 K5 하이브리드는 1당 18km의 기존 모델보다 높아진 연비, 한층 세련된 디자인, 동급 최고의 첨단 안전 사양, 배터리 평생보증 서비스 실시 등 강화된 상품성이 특징이다.

특히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용량을 기존 1.62kWh에서 1.76kWh로 8.6% 늘려 연료 소비 없이 전기로만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EV) 모드의 효율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부품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디자인은 더 뉴 K5를 계승해 전면부는 가로형 레이아웃의 LED 안개등,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 새로운 패턴의 프론트헤드 램프를 탑재했고 후면부는 LED 리어램프를 적용해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하이브리드 전용 휠, 친환경차 전용 엠블럼을 적용했다. 특히 직선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17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을 더했다.

첨단 안전 사양도 더 뉴 K5 하이브리드의 강점이다. 더 뉴 K5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내비게이션 정보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기술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예방은 물론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카카오 인공지능(AI) 플랫폼 용량을 기존 1.62kWh에서 1.76kWh로 8.6% 늘려 연료 소비 없이 전기로만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EV) 모드의 효율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부품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판매가격은 세제혜택을 적용해 ▲프레쉬치 2890만원 ▲노블레스 3095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355만원이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평생보증,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10년 20만km 보증, 중고차 최대 3년 62% 잔가 보장 등의 프리미엄 보장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금감원, 작년 금융사고 4년來 '최저'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최근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고 피해액도 전년 대비 약 7000억원 줄었다. 다만 사만을 대상으로 한 소액 피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금융사고는 전년 대비 11.1% 감소한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도 1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5.7%(6945억원) 감소했다.

역원 규모의 금융사고는 총 211건 발생하는 등 2015년(150억원) 대비 오히려 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의 85.9%(130건)를 차지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1억원 미만 금융사고는 전체 금융사고의 과반인 52%(79건)에 달할 정도다.

반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사고액, 전년비 6945억원(85.7%) ↓...초대형사고 줄어든 여파 작년 금융사고 152건...전체 사고 절반 이상 1억원 미만 사고

금융사고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223건에서 매년 줄어 2016년에는 171건까지 줄었다.

특히 사고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년 연속 발생했던 초대형 대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에는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 2014년에는 KT ENS대출사기(2684억원), 2015년에는 모뉴엘 대출사기(3184억원), 2016년에는 유류담보 대출사기(3868억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는 여전히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억~10

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는 총 211건 발생하는 등 2015년(150억원) 대비 오히려 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의 85.9%(130건)를 차지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1억원 미만 금융사고는 전체 금융사고의 과반인 52%(79건)에 달할 정도다.

반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오늘 저녁은 구워먹는 닭고기~" 15일 오전 서울 동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구워먹는 닭고기, 오리고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우리땅 토종닭 통구이용(350g/6990원), 우리땅 토종닭 한입구이용(350g/7480원), 우리땅 오리 가슴살(400g/6980원), 우리땅 오리 다리살(400g/6800원)을 선보이며 출시 기념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직장인 73% 찬성...“우리 회사는 불가능” 44%

직장인 4명 중 3명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찬성하고 있지만, 현장 실효성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APP) 블라인드가 전국 직장인 1만 2208명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73.1%의 직장인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4.3%에 달했다.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 14%를 합하면 절반이 넘는 직장인이 실질적인 적용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회사별 응답을 살펴보면 주 52시간제의 도입 필요성에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 적용 가능성에는 소속업체와 회사별로 편차가 컸다.

주 52시간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업체는 '회계'였다. 그 중에서도 '적용 불가'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빌로이트 안진'과 '삼정KPMG'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